

요약

2022년에 도입된 범유럽 개인연금(PEPP)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나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판매가 저조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수요·공급, 국가적 차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함. EIOPA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2027년에 PEPP 규제에 대해 평가하고 시장 변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2022년에 도입된 범유럽 개인연금(Pan-European Personal Pension, 이하 'PEPP')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준수한 자산운용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판매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PEPP는 EU 내 거주 국가가 바뀌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쉽게 이관할 수 있는 연금으로, 도입 시 개인의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간 보장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첫 공식 PEPP 공급회사 Finax가 발표한 PEPP의 2023년 운용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PEPP는 EU 시장에서 제공되는 UCITS 펀드 및 ETF 펀드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보임¹⁾
 - PEPP의 수익률은 상품 투자 옵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수수료 공제 후 13~15%를 기록함
- 이에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이하 'EIOPA')은 PEPP의 판매가 저조한 원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 EU 내 각국의 상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²⁾
 - EIOPA의 보고서에 따르면, PEPP는 국가 간 연금 이관이 수월하도록 설계돼 도입 당시 특히 국가 간 이동이 잦은 노동자의 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이동 노동자의 수가 적어 잠재적인 수요 자체가 적다는 문제가 있음
 - 다른 EU 회원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EU 경제활동 인구의 3.3%(약 1,480만 명)에 불과함
 - EU 시민의 낮은 개인연금 보유율과 PEPP에 대한 낮은 인지도 또한 동 상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됨
 - EIOPA의 2024 유로바로미터에 따르면, EU 시민의 약 18%만이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76%가 PEPP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PEPP의 수수료 상한(연간 자산 누적액의 1%), 국가 간 상이한 하위 계좌 구조나 규제 요건을 검토하는 등 관리·운영에 드는 '숨겨진 비용'에 대한 부담이 PEPP를 판매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됨

1) European Pensions(2024. 11. 7), "EU's only PEPP 'significantly outperformed' other funds in 2023, study finds"

2) EIOPA(2024. 9. 11), "A simple and long-term European savings product: the future Pan-European Pension product"

- PEPP의 수수료는 영국의 연금상품, 미국의 401K 등의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상품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PEPP는 여전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특히 개인연금의 최근 평균 수익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PEPP를 도입하려는 보험회사는 기존 상품과의 경쟁 및 매출 손실 위험을 고려해야 하므로 판매를 주저할 수 있음
 - EIOPA의 2023년 비용 및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PEPP 외의 개인연금의 평균 수익률 1.5%p, 하이브리드연금은 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간 규제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일부 회원국이 PEPP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이나 행정 요건을 여전히 발표하지 않아 PEPP를 각국에 원활히 보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PEPP 규제에 따르면, 회원국은 규제 적용일(2022년 3월) 이전에 적립 및 인출 단계와 관련된 조건 및 국내 법률, 행정 조항 등을 발표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2023년 이후에야 PEPP 관련 국내 규정을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개인연금 자동 가입 시스템 도입, 수수료 상한 완화, EU 차원의 연금 대시보드 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PEPP 제도의 개정을 제안함
- 자동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 PEPP 가입률을 높이고, 연금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운용 수익률 등을 꾸준히 검토할 수 있다면 PEPP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함
 - 영국의 자동 가입 프로그램과 뉴질랜드의 KiwiSaver 모델을 성공 사례로 언급하며 EU 연합 차원의 자동 가입 시스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PEPP와 퇴직연금을 결합한 연금상품을 제시하고 투자 옵션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는 등 PEPP의 비용 대비 가치를 개선하고자 함
 - 결합 연금상품의 경우, 퇴직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수요가 더 많고 퇴직연금에 적용된 기존의 세제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PEPP 제공에 대한 부담이 낮아짐
 - EU 차원의 연금 대시보드를 도입해 사용자가 각국의 연금 발전 상황을 쉽게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PEPP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기존 개인연금에 축적된 자산을 PEPP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각 회원국이 국가별 PEPP를 개발하고 이를 EU 공통 규칙에 따라 라벨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각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함
- EIOPA는 위 내용을 토대로 2027년에 PEPP 규제에 대해 평가하고 시장 변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